

부서장회의 개선방안

<기획팀, 2018.02.08.>

개선의 필요성

- 부서별 “연구진행 상황” 및 “부서원 활동” 보고 중심으로 운영 중 - 부서원들의 연구일정을 소개하는 주요 업무계획과 기타 활동 사항으로 구성
- 시정 및 연구원 이슈에 대한 논의 부족
 - 시정에 주요 이슈가 연구과제와 무관할 경우 논의할 수 있는 여지 부족
 -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논의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논의기구로써 한계가 있음.

개선방안

- 회의자료 작성 방식 변경
 -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고 현재와 같이 작성

| 기 존 | 변 경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주요 업무계획○ 기타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주요 업무계획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주요활동- 기타활동○ 시정현안(신규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현안이슈<p>※ 연구원 대응활동 포함</p> |

- 부서별 회의자료 작성 시 부서 연구와 관련된 시정현안 추가
 1. 시장지시 사항 및 각 실국 중점 의제(신년사, 업무보고 등)
 2. 시정 상 대응이 필요한 사건, 사고, 언론보도 사항(미세먼지, 화재, 안전 등)

3. 현재수행하고있는과제와관련한시정의제(광화문광장, 젠트리피케이션등)
4. 기타 여러 부서 간 공유가 필요한 사항(공동대응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) 등을 제목형식으로 작성하고 연구원 대응 활동도 정리

○ 논의방식 변경

- 주요 업무계획은 “주요활동”을 간략히 보고하고, 시정현안을 중심으로 보고
- 주요 업무계획, 시정현안에 대해 대응방법, 부서 공동참여 등에 대한 의견제시
- 주요 업무계획, 시정현안 중 추가보고, 추가논의 등이 필요한 사항 지정

○ 기타사항

- 충분한 논의를 위해 부서장회의 시간을 1.5 시간 이상 확보
- 부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석

○ 시행일 : 2월 19일(월)부터